

서 평

대학, 갈등과 선택

Henry Rosovsky 지음

이형행 옮김

삼성경제연구소 출간 / 447쪽

ISBN 89-7633-026-9

하버드 대학의 전 문리대학장이었으며 현재 경제학과 석좌교수 겸 하버드 대학 법인이사회의 이사인 Henry Rosovsky 박사의 *The University: An Owner's Manual*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이형행 교수에 의하여 번역되었다(삼성경제연구소, 1996년). Rosovsky 교수는 지난 40여 년간의 교수 생활, 11년간의 학장 그리고 그 후 이사로서의 폭넓은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사립대학교 운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생하게 그려 놓았다.

우리나라는 개방 사회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교육이념에 있어서도 능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의 보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선발 준거에 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사회구조와 학생선발 유형을 가진 미국 대학이 어떻게 고등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게 되었는지, 그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학 발전에 큰 시사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대학이 어떤 철학적 이념에 기초하여 다양한 배경의 신입생을 선발하는지, 학생은 대학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 왜 학부에서 교양교육을 강조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1970년대 초부터 수년간 논의를 거쳐 결정한 중핵교육과정(Rosovsky 교수의 큰 업적 중 하나임)의 목적과 그들이 필수로 부과한 여섯 영역의 학문은 무엇인지, 교수의 임용 및 종신재직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대학의 의사결정 원리는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 대학에 관계되고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미국 고등교육의 원로인 하버드 대학의 David Riesman 교수는 종신재직권 제도가 결정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평하였다.

대학운영 면에서 우리나라의 대학(특히 사립 대학)은 지난 10여 년간 민주화의 정치적 수용돌이 속에서 대학 구성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혼동하여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자신이 대학의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큰 혼란을 겪었다. Rosovsky 교수는 대학에서의 의사결정은 대학의 독특한 목적, 구조와 사명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수평적 평등성이 적용될 수 없고, 각 구성원 집단은 각기의 고유한 역할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옮긴이 이형행 교수는 고등교육 전문가로서 Rosovsky 교수의 역작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적격자이다. 특별히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하여 역자 고유의 수백 개에 달하는 주석을 단 성실함으로 이 책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이 책은 자녀의 조기 유학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모, 이미 프렙 스쿨(prep school)에 자녀를 진학 혹은 전학시킨 부모, 그리고 현재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또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 총장을 비롯한 대학행정 보직자,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동문, 학부모, 사회의 여러 분야의 인사 등 대학의 발전을 회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높이 추천하는 바이다. ★

주경란/수도여사대(현 세종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석사,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이 있고, 『교육기회의 남녀 불평등』, 『미국 사립대학교의 대학 운영 연구』의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